

영남방언 음운론의 특성과 전망

이 동 화*

< 목 차 >

- | | |
|---------------|--------------|
| I. 서론 | 3. 운소연구 |
| II. 영남문헌어의 연구 | 1) 연구의 성과 |
| 1. 연구의 성과 | 2) 연구의 특성 |
| 2. 연구의 특성 | 4. 방언지리학적 연구 |
| III. 영남방언의 연구 | 1) 연구의 성과 |
| 1. 통시적 연구 | 2) 연구의 특성 |
| 1) 연구의 성과 | IV. 결론 및 전망 |
| 2) 연구의 특성 | |
| 2. 공시적 연구 | |
| 1) 연구의 성과 | |
| 2) 연구의 특성 | |

< 요약문 >

본 연구는 영남방언의 음운론적 연구에 대한 성과를 정리해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 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크게 문헌어 연구와 방언 연구로 나누고, 후자는 다시 통시적 연구, 공시적 연구, 운소 연구, 방언지리학적 연구로 나누어 진다.

이에 대한 결론 및 전망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문헌어 연구는 자료가 다소 빈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방언의 자료 발굴과 치밀한 서지학적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시음운론적 연구는 국어사 전반에 걸친 음운현상이나 그 변화와 관련지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방언의 공시음운론적 연구는 그 업적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음운

* 영남대학교 강사

현상이나 규칙의 발견과 함께 음운기제 등을 밝히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 방언이 성조언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조에 대한 연구 성과는 두드러진 반면 성조론자들 간에 견해차가 큰 편이기 때문에 실험음성학적 접근 등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

I. 서 론

1.1 방언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언어다. 교육정책적인 차원에서 특정 어휘를 선별하여 사정한 인공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생생한 자연언어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을 펼친 학자도 있긴 하지만¹⁾, 언어야말로 그 속에 민족의 열이 담겨 있고, 그 지역민의 정서가 서려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방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도 뜻 깊은 작업이며, 아울러 국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방언(경상도방언 또는 동남방언)²⁾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역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어 방언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해방 이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방언학이 국어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방언 자료집인 최학근(1962), 현평호(1962)를 시작으로 전국 대상의 방언자료집인 김형규(1974), 최학근(1978) 등이 잇따라 출간되면서 방언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어방언사적 관점에서 볼 때 5·60년대의 방언 연구는 몇몇 전통적인 방법론에 의한 연구들을 제외한다면 주로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체계와 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성조언어인 영남방언의 성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허웅, 1954). 70년대에는 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지배하는 음운규칙 정밀화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이병근, 1979).

1) 이른바 언어의 상대성 이론이라 불리는 Sapir-Whorf 가설이 그것이다.

2) 영남방언, 경상도 방언, 동남방언 등의 용어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영남방언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이어서 80년대 이후에는 주로 생성음운론적 관점에서 지역방언에 대한 음운규칙과 음운현상의 발견에 힘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영남방언에 대한 연구 업적 중에는 음운론적 연구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구조언어학적 이론에서는 음운체계의 수립에 주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영남방언의 모음체계는 지역에 따라 최대가 8모음체계, 최소가 6모음체계로 밝혀져 있으며, 이 방언이 성조언어라는 특징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 역시 괄목할 만하다(최명옥, 1979).

또한 최근에는 이 방언의 방언구획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업적들이 쌓여가고 있으며, 방언자료집의 발간도 활발한 편이다.

1.2 영남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아울러 그 전망을 짚어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본고에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먼저 영남문헌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와 방언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로 나눈 다음, 후자는 다시 통시음운론적 연구 및 공시음운론적 연구와 운소 연구, 그리고 방언지리학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형태론, 통사·의미론, 어휘론, 방언자료집 등 이 방면의 전반적인 연구성과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치밀한 정리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둔다.

II. 영남문헌어의 연구

1. 연구의 성과

서재극(1969)은 현재의 경주방언 부사형 -a는 어간모음과의 모음조화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신라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향가에서의 -良은 -a 임이 분명하고, <계림유사>에 나타난 중부방언에도 -a가 우세하다는 사실로 보아 원래부터 부사형 -a는 모음조화를 외면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종갑(1982)에서는 16세기 후반의 자료인 <절대만법>에 나타난 경상도 방

언적 요소를 밝히고 모음조화 파괴경향을 살핀 다음, 영남방언에서도 중양어와 마찬가지로 저해음 계열에 무성저해음 /p, t, s, k/와 유성저해음 /b, d, z, g/이 과거에 존재했음을 논증하고 있다.³⁾

김주원(1984)은 영남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18세기 간행의 <보권염불문> 계통의 몇몇 불서를 대상으로 한 음운론적 연구로서, ㄴ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 ㄴ구개음화 및 탈락, 파찰음 /ㅈ, ㅊ/의 음가, 비모음화 등의 음운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임식(1986)에서는 18세기 후기 자료인 <십구사략언해>에 나타난 영남방언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이 당시의 음운현상 가운데 구개음화, 자음동화, 경음화, 단모음화, 원순모음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최임식(1991)에서는 19세기 후기 남부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잠삼집요>는 서남방언을, <규합총서>는 동남방언을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원순모음화, 전설모음화, 모음의 중화, ㅟ모음역행동화, 자음삭제, 자음동화 등의 음운현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백두현(1989)은 한글로 표기된 영남문헌어에 나타난 음운현상을 통시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음운변화의 발생 및 발달과정, 음운변화가 일어난 원인, 음운변화가 음운체계에서 갖는 의미 등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논문인데, 모음변화에 있어서는 ‘ㅛ’의 변화, 하향이중모음의 변화, 모음중화와 고모음화, 원순모음화, 모음체계의 변화 등에 대해, 자음변화에 있어서는 병과 △의 변화, 구개음화, 어간말 자음군단순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손병태(1996)에서는 향약 약재명이 실린 여러 문헌자료에 대한 국어학적 해석과 함께 그것들이 현대 영남방언, 특히 동해안 지역인 경북 영덕, 울진, 경주 등의 지역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형태론적·의미론적 특징과 함께 음운론적 특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영덕(1996)은 18세기 영남문헌어를 대상으로 표기법과 음운현상을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특히 자음음운현상 중에서도 경음화, 유기음화, 자

3) 고대국어의 저해음계열이 유·무성에 의한 대립 체계를 이루었는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유·무성의 대립체계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어학계에서 의견의 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음탈락, 자음첨가, 자음동화, 구개음화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 연구의 특성

영남방언을 반영하고 있는 문헌이 그리 많지 않아 이 방면의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 자료상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물론 앞으로 자료 발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함은 연구자들의 몫이다.⁴⁾

지금까지의 문헌연구에 의한 논문 편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나 문헌에 나타난 영남방언의 여러 음운현상에 대해 연구자들 나름대로는 치밀한 고찰을 하고 있다. 특히 백두현(1989)은 영남문헌어의 자료를 총망라하여 통시음운론적 관점에서 음운사 전반을 다루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Ⅲ. 영남방언의 연구

1. 통시적 연구

1) 연구의 성과

최명옥(1978¹⁾)은 영남방언, 특히 경주지역의 방언자료를 토대로 이 방언이 신라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리라는 전제 아래 고대국어에서의 /병, △/의 존재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중세중앙어의 /병/과 /△/이 이 방언에서 각각 ㅂ과 ㅅ으로 대응되는 것은 중앙어에서 /병/이 소멸되는 시기 보다 앞서서 이 방언에서 전자가 후자에 합류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리고 최명옥(1978²⁾)에서는 동남방언의 기저음운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세 음소인 /ㄱ, ㄷ, △/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최명옥

4) 최근 들어 국어학자들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몇몇 학자들과 공동으로 자료 발굴과 서지학적 접근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1982)의 앞부분은 경북 월성지역어에 대한 통시적 음운연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모음체계를 재구한 다음 /i/의 변화, e>i, 모음조화, 원순모음화, 전설고모음화, 구개음화, |모음역행동화, 이중모음의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권재선(1981)은 경북 청도지역어의 모음체계에 대한 통시적 연구인데, 여기서는 먼저 이 방언의 모음체계와 중앙어와의 대응양상을 살펴보고 내재적 변화와 음성고찰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구개음화현상과 관련하여 /i/ 음소의 존재가능성을 시사 해주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박창원(1983)은 경남 고성지역어에 대한 통시음운론적 모음연구로서, 먼저 이 방언의 단모음 및 이중모음을 재구한 다음 설축, 개구도, 조음위치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이 방언의 음운변화 및 모음체계의 변천을 규명하고 있다.

이옥화, 이수주(1983)에서는 16세기 자료인 <칠대만법>에 나타난 유성저해음 /b, d, z, g/와 현대방언인 경북 풍기지역어의 저해음을 대비함으로써 저해음의 변천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16세기 문헌어의 유성저해음 /b, d, z, g/와 이 방언의 /p, t, s, k/가 대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⁵⁾

남영종(1989)은 경북 영덕군 영해지역어의 통시음운론적 연구를 위해 시도된 것으로서, 먼저 이 방언의 음운체계를 재구한 다음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o>u의 변화, e의 변화, |모음역행동화, 모음조화와 음모음화, 원순모음화, 전설고모음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오종갑(1999ㄷ)은 이미 오종갑(1997, 1998ㄱ, 1998ㄴ, 1999ㄱ, 1999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방언자료집>의 자료를 활용하여 영남방언에서의 지역적 차이를 음운규칙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남방언의 특징적인 음운규칙에는 단모음의 변화, 이중모음의 변화, 완전순행동화, |역행동화, 자음탈락, 유기음화 등이 있음을 밝히고, 이들의 개신 및 이들의 전파양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경북은 청송과 비청송방언으로, 경남은 동부방언 및 중부방언 그리고 서부방언으로 나누고 있다.

5) 이런 결론은 앞서 오종갑(1982)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2) 연구의 특성

언어의 통시적 현상과 공시적 현상은 분명히 다르지만 실제로 언어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양자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도 더러 있다. 여기서는 주로 영남방언의 통시적 음운연구로 생각되는 몇몇 논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구의 정밀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방언에서의 음운체계 재구 또는 그 변화, 음소 또는 음운규칙의 변화 등이 내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공시적 연구

1) 연구의 성과

최명옥(1980)은 동해안 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해면 어촌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성과인 최명옥(1979)을 바탕으로 이 지역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시도된 것으로 주민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 반촌인 괴시리와 주민이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민촌인 대진리를 대상으로 반촌어와 민촌어의 특징을 밝히려 하고 있다. 여기서는 형태 및 통사, 어휘, 음운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특히 음운부분에서는 이 방언의 음운체계를 수립한 다음 여러 음운현상과 음운규칙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활용과 곡용으로 나누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최명옥(1982) 뒷부분에서는 공시적 음운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활음화와 장모음화, 모음축약, 활음삭제, 완전순행동화, 동음삭제, 단모음화, 후음삭제, 전설고모음화, 원순모음화, 비모음화, ㅓ모음역행동화, 자음중화, 자음동화 등 여러 음운현상과 이것을 지배하는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명옥(1995)은 경남 합천지역어에 대한 공시음운론적 연구로서, 먼저 이 방언의 음운체계를 수립한 다음 음운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어간말 자음의 미파화, 자음동화, 모음동화, 경음화, 어미 ‘아’의 교체, 탈락, 축약 등을 다루고 있다.

정연찬(1979)에서는 경남 고성·통영지역의 음운에 대한 논의 가운데 양순음 /ㅂ, ㅍ, ㅃ/, 치경음 /ㄷ, ㅌ, ㄸ/, 연구개음 /ㄱ, ㅋ, ㄲ/, 경구개음 /ㅈ, ㅊ,

ㅈ/, 마찰음 /ㅅ, ㅆ/ 등의 형태음소론적 고찰과 발음의 출현범위 및 변동을 밝히고 있다.

전광현(1979)은 경남 함양지역어에 대한 공시음운론적 연구로서, 구개음화, 어두경음화현상, 어간말 자음군, 중화 및 어말자음의 재구조화, 음라우트 현상, 이중모음 음운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정목(1981)은 경남 진해지역어의 음라우트 현상을 논의하면서, 특히 동화주와 피동화음이 갖고 있는 음운론적 성격, 음운·형태·통사론적 제약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바, 형태소 내부에서나 경계에서나 할 것 없이 피동화음의 성조가 저조일 때 음라우트 실현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 현상은 성조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⁶⁾

정인상(1982)은 경남 통영지역어에 있어서 용언활용을 중심으로 음운론적 고찰을 하고 있는데, 어간말음의 다양한 음운환경에 따라 어미가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백두현(1982)은 경북 금릉지역어에 대한 공시음운론적 연구로서, 이 방언의 음운체계를 수립한 다음 모음관련 음운현상으로 모음조화, 활음형성, 완전순행동화, 모음삭제, 단모음화, 비모음화 등을, 자음관련 음운현상으로 자음중화, 자음군 단순화 자음동화, 경음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백두현(1985)은 경북 상주 화북지역어에 대한 공시적 음운연구로서, 이 방언의 모음체계 및 자음체계, 운소체계를 수립한 다음 이 지역이 경북과 충북의 접촉지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 방언의 특징을 보여주는 어말자음군 단순화, 유기음화, 경음화 등의 음운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상규(1984)는 경남 울주지역어의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이며, 이상규(1990)는 음운론적 연구는 아니지만 경북방언의 다양한 격어미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성인출(1984)은 경남 창녕지역어에 대한 공시음운론을 다룬 것인데, 먼저 음

6) 국어에서의 음라우트 현상은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의 개재 자음의 음운 자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여기서는 피동화음이 지닌 성조와 관련지어 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독특한 견해를 보여 주고 있으나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소체계를 수립한 다음 음운현상과 그 규칙으로서 유음삭제, 동모음삭제, 어두 모음삭제, 후음삭제, 완전순행동화, 단모음화, 비모음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동화(1984Ⅰ)는 경북 안동지역어의 여러 음운현상, 즉 순음화, 연구개음화, 비음화, 마찰음화, 유음화, 모음조화, Ⅱ모음역행동화,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등을 논의하면서, 특히 모음이나 자음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운변동을 통해 음운론적 강도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동화(1984Ⅱ)에서는 경북 고령지역어의 모음순행동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지역어는 경남방언과의 접촉방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남 동부방언에서 생산적으로 실현되는 모음순행동화현상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동화(1991)는 경북 경주시 양동마을의 음운론적 특징을 고찰하면서 반촌어로서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고 있는데, 인접한 마을이면서 민촌인 인동마을의 언어와 비교하면서 반촌어와 민촌어의 두드러진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김영태(1985)는 경남 창원지역어의 형태·통사 및 음운, 어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인데, 특히 음운연구 부분에서는 기저음운체계를 설정하고, 음운현상에 있어 자음군단순화와 같은 귀착, 모음조화, Ⅱ모음역행동화, 자음동화와 같은 동화, 축약, 생략, 첨가, 변칙활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신기상(1986)은 동부 경남방언에 대한 공시음운론적 연구로서, 이 방언의 음운체계를 제시한 다음, 몇몇 음운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어미 ‘-아’의 교체와 활음형성, 모음탈락, Ⅱ모음역행동화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주된 관심은 운소에게에 관한 것이다.

이시진(1987)은 경북 문경지역에 대한 공시적 음운연구로서, 이 방언의 음운현상으로 모음조화, 반모음화, 원순모음화, 단모음화, 자음동화, 음운삭제 등을 들고 이에 대한 규칙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시진(1996)은 <한국방언자료집>에 실린 경북방언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음운론적 관점에서 여러 음운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자질계층이론에 입각해서 경북 각 시·군의 방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주로 순음화, 연구개음화, 비음화, 유음화, 중화, 유기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전설고모음화, 원순모음화 등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정철(1988)은 정철(1977, 1980, 1982 등)에서 이루어진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경북 의성 서부지역 4개 면에 걸쳐 벽지촌락에 대한 공시음운론적 연구인데, 먼저 이 방언의 음운체계를 수립한 다음 음운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자음변동으로 중화, 유기음화, 경음화, 동화현상, 변칙활용, 탈락, 자음군단순화 등을 모음변동으로 모음조화현상, 활음화와 장모음화, 축약, 활음탈락, 어미첫 모음동화, 비모음화 등을 다루고 있다.

김덕호(1999)는 김덕호(1997)에서 이루어진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영남방언에서의 개신파의 이동현상을 살피고, 그 전파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바, 어두ㅓ경음화 개신파의 전파속력을 측정해 본 결과 인구동향과 인구 이동의 증감이 개신파의 이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연구의 특성

1970년대 이후의 방언에 대한 공시음운론적 연구는 개별음운현상에 대한 연구보다는 특정지역어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생성음운론적 관점에서 그 지역어의 음운체계를 수립한 다음, 국어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음운현상인 활음화와 활음삭제, 원순모음화, 구개음화, 전설모음화, 동음삭제, 연구개음화, 순음화, 비음화, 유음화, 자음중화, 유기음화, 경음화 등을 논의하면서 그와 관련된 음운규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⁷⁾ 물론 대상지역어의 전반적 음운현상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한 걸음 나아가 음운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음운기제나 음운과정, 또는 특이한 음운현상을 밝히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 대상지역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기존 연구결과와 거의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3. 운소 연구

7) 최근들어 종전의 단선음운론 위주의 연구방법론에서 복선음운론(non-linear phonology)에 의해 음운현상을 설명하려는 몇몇 시도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이라 평가할 만하다.

1) 연구의 성과

허웅(1954)은 영남방언의 성조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최초의 논문으로서 경남 김해지역어의 성조에 대한 공시적 기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방언의 성조를 저·중·고 3단계계로 보면서, 아울러 체언과 용언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여러 가지의 성조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음절체언에는 중고조, 고중조, 고고조, 저중조 등의 성조형이 3음절체언에는 중고중조, 고중중조, 고고중조, 저중중조, 중고고조 등의 성조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Ramesy, S. R.(1974)은 함경남도 북청방언의 음조와 경상방언의 액센트 및 중세국어의 방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경상방언의 경우, ‘액센트 추이법칙’에 의해 함남방언의 액센트 표지를 왼쪽으로 한 음절 옮기면 영남방언의 액센트형이 도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구방언에서의 고저·장단을 논의한 문효근(1962)을 바탕으로 문효근(1974)에서는 이 방언의 성조에 대한 공시적 기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대구방언에서는 고저·장단을 동시에 고려하여 운소체계로 고저 2단조직으로, 경남방언은 저중고 3단조직으로 해석하고 체언과 용언어간의 음절수에 따른 여러 성조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음성분석기를 활용한실험음성학적 접근으로 성조의 본질을 밝히려 하고 있다.

정연찬(1974)은 경남 고성지역어에 대한 공시적 성조연구로서, 이 방언의 성조는 단어성조체계이며 고저 2단계계로 보고 음장을 수반한 저조는 복합저조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체언부를 음절 수에 따라 분류하여 성조와 그 성조형을 기술한 다음, 용언부도 같은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세국어 성조와 방언성조를 대응시켜 양자 간에 고저가 정반대로 대립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만(2000)에서는 김영만(1966, 1967, 1972, 1974, 1986, 1987, 1997 등)에서 밝혀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국어성조론자들이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에 대해 성조라는 용어를 쓰는 데 반해 고저와 장단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초분절음소(또는 운소)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중세국어의 성조 표기는 중국운서의 개

념인 평성, 상성, 거성과 구분하기 위해 방점 표기 대신에 회랍문자인 θ , I , Π 등을, 현대국어는 고저·장단·강약 개념을 동시에 나타내는 O, U, W 등의 독특한 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변별자질의 특징에 따라 각각 ‘꽃, 풀, 별’류의 세 가지 성조형으로 분류된다고 하고 있다.⁸⁾

김차균(1977)에서는 경남 창원 및 진주, 경북 경주 등 주로 경상도 방언의 성조에 대해 생성음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체계성조형과 표면성조형, 운율형을 달리 설정한 것은 다소 추상음운론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경남·경북의 성조를 저·중·고 3단계계로 보고 있으며, 성조체계의 변천, 성조형의 결합, 한자어의 성조, 성조의 변동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더 나아가 성조의 분석단위를 문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동부 경남방언의 운소를 다루고 있는 신기상(1986)에서는 이 방언의 운소체계를 고저·장단으로 파악하여 고저에 있어서는 고저 2단계계로, 음장에 있어서는 장단 2단계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조에는 고장과 고단이, 저조에는 저장과 저단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고저장단형을 체언과 용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고장형을 설정한 것이 특이하다.

정인교(1987)는 경북 대구방언과 경남 동남부방언의 성조현상을 서로 관계짓는 규칙들을 탐색할 목적으로 진행되는데, 음성론적 관찰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을 통해 경남·경북 할 것 없이 저중고 3단계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자립분절음운론에 의해 이들 성조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수(1979)는 서부 경남방언인 경남 진주지역어에 대한 성조 고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논문인데, 추상화 변형규칙에 의해 4단성조가 3단성조 바뀌게 되며, 이 방언에서 적용되는 독특한 성조생성규칙에 의해 표면성조형이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북 경산지역어에 대한 공식적 성조기술을 하고 있는 김성환(1988)은 경북 방언 성조의 특질을 개괄한 다음, 체언과 용언별로 나누어 성조형을 제시하고 성조의 변동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하면서 경북방언의 성조를 고저 2단계

8) 이 설명에 따르면, 경북방언의 꽃류는 고강조, 풀류는 중평조, 별류는 장음인 반면 경남방언의꽃류는 고강조, 풀류는 중평조, 별류는 저조가 된다.

로 해석하고 있다.

경북 봉화지역어의 운율체계 수립을 위해 시도된 조현숙(1985)에서는 이 방언의 성조를 저조고 3단계계로 보고, 악센트 표지와 음조 배정규칙에 의해 성조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명사어간과 동사어간에 각각 적용되는 악센트 이동규칙에 의해 성조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동화(1990)에서는 이동화(1986, 1989)에서 논의된 성조론을 바탕으로 경북 방언의 성조에 대해 자립분절음운론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방언의 성조를 고저 2단계계로 보고, 핵성조형과 무핵성조형의 두 성조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어절 수에 관계 없이 H가 하나인 성조형이고, 후자는 H가 없는 성조형을 말한다. 나아가 이 방언에서의 성조변동현상에 대해 자립분절음운론에 입각한 성조규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한조(1993)는 대구지역어의 성조체계를 저조고 3단계계로 파악하면서, 성조소는 기본운소 H, M, L 3개 이외에 파생운소 h, m 2개를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김차균(1977)에서의 설명방법을 별 수정 없이 적용하여 체계성조형에 의해 어절성조형, 표면성조형, 음조형, 운율형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음절 수에 따라 다양한 표면성조형을 제시하고 있다.

최명옥(1998)에서는 현대국어의 성조소체계를 논의하면서, 영남방언의 성조체계는 고조와 저조로 되어 있고 경북방언은 경남방언과 달리 저조와 고조가 병치된 복합성조 저고조를 더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부분의 성조론자들이 고조임을 주장하는 ‘말(馬)⁹⁾의 성조에 대해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그것이 평성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저조로 해석하는 독특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김무식(1992)에서의 경북 의성지역어 초분절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에 이어, 김무식(1999)에서는 영남방언 중에서도 경북 봉화·상주·예천·청도·울진지역어의 초분절소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로 경북방언의 초분절소는 성조가 주를 이루고 음장은 부수적으로 결부되며,

9) 영남방언에서의 ‘말(馬)’은 경남·북 가릴 것 없이 격이미가 붙지 않고 그것이 단독으로 발음될 때 ‘말(斗)’에 비해 고조로 실현되는 음성적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방언의 기본성조소는 고조와 저조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주원(1991, 1994, 1995 등)에 이어, 김주원(2000)은 영남방언의 성조에 대한 공식적 기술과 중세국어로부터의 역사적 변천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성조의 역사적 변천에는 두 개의 규칙인 ‘최후고조의 저조화’와 ‘예기 발음’ 규칙이 적용되었으며, 이것의 적용양상이 달라짐으로써 방언분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즉 전자의 규칙에 의해 동북방언이, 후자의 규칙에 의해 동남방언이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정영호(1994)는 경남 남해지역어의 성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 방언의 성조소는 저중고 3단계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4개의 성조형인 H₁형, Hn형, M형, L형을 설정한 다음 체언, 용언, 합성어의 성조와 성조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문규(2001)는 성조의 분석단위를 문장에까지 확대하여 경북방언에서의 설명의문문의 성조형 형성과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어 실현됨을 밝히고 있다. 의문사와 뒤따르는 성분들이 결합하여 성조여절을 이룰 때, 경북 북부방언에서는 ‘앞 높은 형’이, 경북 남부방언에서는 ‘뒤 높은 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후자는 성조보다 억양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¹⁰⁾

2) 연구의 특성

영남방언이 성조언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방언의 성조에 대한 연구업적은 비교적 많이 축적된 편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현대방언에 대한 기술이고, 간혹 중세국어 성조와의 대응관계를 논의한 것들도 더러 있다. 그리고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초기의 성조론은 주로 구조주의적인 기술에 의해 성조의 수와 성조형을 밝히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70년대 후반부터는 생성음운론적 방법에 의해 성조체계나 성조형은 물론이고 성조구칙을 밝히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는 자립분절음운론이 도입되면서 성조론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최근에는 실험음성학적인 방법도 시

10) 성조분석의 단위를 문장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국어 성조론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는 더욱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영남방언의 성조체계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경북방언
 - ┌ 2단계계(L, H) : 문효근, 김영만, 김성환, 이동화, 김무식, 최명옥
 - └ 3단계계(L, M, H) : 김차균, 조현숙, 정인교, 최한조
- 경남방언
 - ┌ 2단계계(L, H) : 정연찬, 신기상, 최명옥
 - └ 3단계계(L, M, H) : 허웅, 문효근, 김영만, 김차균, 박종수, 정인교, 정영호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경북방언의 성조는 2단계계, 경남방언은 3단계계로 보는 경향이 뚜렷한데, 이런 사실은 앞으로의 성조연구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4. 방언지리학적 연구

1) 연구의 성과

김영송(1963)은 경남방언의 음운에 대해 질문지 조사를 통한 방언의 공시적 기술을 한 연구인데, /으/와 /어/, /예/와/애/가 시차적 대립을 보여주는지 여부에 따라 경남방언의 구획을 나누고 있다. 그리하여 이 방언의 양자가 서로 구별되는 서남지방과 구별되지 않는 동북지방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리고 김영송(1974) 역시 경남의 방언구획을 다루고 있는데, /으/와/ 어/의 대립, /애/와 /예/의 대립, /ㅅ/와 /ㅆ/의 대립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 방언의 구획을 동북 경남지역과 서남 경남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김영태(1975)에서는 경남의 방언구획을 설정하기 위해 음운, 어휘, 어법, 성조 등에 의해 구획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들 네 기준에 의한 등어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음운면에서 본다면 대체로 동북지역과 서남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결과는 김영송(1974)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김재문(1977)은 서부 경남방언과 동부 경남방언과의 지역차를 살피기 위해 모음체계와 몇몇 음운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서부경남방언에서는 /으/와 /어/, /애/와/에/, /ㅏ/와 /ㅑ/ 등이 구별되는데 비해 동부 경남방언에서는 양자가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결론은 앞의 연구 결과와 거의 같은 셈이다.

신승원(1990)은 경북 영풍지역어의 방언구획에 관심을 갖고 음운, 어휘 및 형태, 어법에 의한 분화양상을 고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한 구획은 일치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신승원(1997)은 신승원(1982, 1990, 1991, 1996 등)을 바탕으로 경북 의성지역어의 방언구획을 목적으로 진행한 작업인데, 군 단위지역에 대한 방언지리학적 연구는 매우 드문 업적이다. 여기서는 먼저 음운체계를 제시한 다음, 음운론적 분화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 음소체계, 음소변화, 어미 ‘아’의 모음조화, 반모음화, 완전순행동화, 경음화, 자음군단순화,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분화의 유형과 개신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최명옥(1992)은 영남방언의 하위방언인 경북방언과 경남방언의 분화양상을 살피기 위해 음운, 문법형태, 어휘면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주로 음운면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음운체계 및 여러 음운규칙에 의해 그어진 굵은 등어선은 대체로 경북과 경남의 행정구역 경계와 거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영남방언의 구획 설정을 위해 진행되는 최명옥(1994)에서는 먼저 음운, 어휘, 어법에 걸쳐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음운관련 조사항목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이 방언의 구획은 먼저 경북방언과 경남방언으로 구획이 나누어지고, 다음으로 경북방언은 대체로 경북 중동부방언과 경북 서부방언으로, 경남방언은 대체로 경남 동부방언과 경남 서부방언으로 나누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2) 연구의 특성

영남방언의 방언구획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음운론적 접근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대단위 방언권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켜 왔으나 최근에는 더욱 정밀화되어 소방언

권인 군 단위지역의 방언구획도 시도되고 있다(신승원, 1997). 또한 방언지리학에서는 제보자 선정, 조사방법, 조사항목 작성, 방언지도의 작성 등 어려운 작업과정이 수반되는데, 특히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등과 관련하여 최명옥(1992, 1994), 김덕호(1999) 등의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영남방언의 하위방언 구획은 대체로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는 경북방언과 경남방언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경북방언은 경북 중동부방언과 경북 서부방언으로, 경남방언은 경남 동부방언과 경남 서부방언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전망

지금까지 영남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업적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논의의 진행을 위해 편의상 문헌어 연구와 방언연구로 크게 나누고, 후자는 다시 통시적 연구, 공시적 연구, 운소 연구, 방언지리학적 연구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 방언의 연구에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1) 문헌어 연구는 이 방언의 자료가 빈약한 편이어서 두드러진 업적이 많지 않은 편이나, 앞으로 자료 발굴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상자료에 대해서는 서지학적 검토와 함께 국어사 전반과 관련지어 면밀한 고찰을 해야 할 것이다.

(2) 이 방언에 대한 통시음운론적 연구업적 또한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국어사 전반에 걸쳐 나타난 일반적 언어현상과 방언자료에 나타난 언어현상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관련짓느냐 하는 것이 연구의 관건이 될 것이다.

(3) 공시음운론적 연구는 그 업적이 비교적 풍부하다고 알 수 있는데, 최근 까지도 너무 틀에 박힌 방법론으로 지역에 연구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방언에 나타난 음운현상과 관련된 음운기제는 무엇인지, 특이한 음운현상은 존재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운소(또는 성조) 연구는 이 방언이 성조언어라는 이유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성조론자들은 성조소, 성조체계, 성조형, 성조규칙 등에 대해 관심을 보여 왔는데 아직 확실한 결론에 이른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실험음성학적 접근을 통해 미비한 점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중세국어성조를 방언성조에 지나치게 관련짓거나 성조의 분석단위를 문장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고해 볼 문제이다.

(5) 방언구획의 설정을 목표로 하는 방언지리학적 연구는 최근 몇몇 학자에 의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치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조사항목의 개발, 방언측정법 등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영남방언, 음운론, 통시적 연구, 공시적 연구, 운소 연구

참고 문헌

- 강신항(1976), “경북 안동·봉화·영해지역의 이중언어생활”, 『논문집』(성균관대) 22.
- 권재선(1981), “청도방언 모음체계 변천 연구” 『한국어문학논집』(대구대) 1.
- 김덕호(1997),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적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 김덕호(1999), “언어전파의 계측방법에 대하여” 『어문학』(한국어문학회) 66.
- 김무식(1992), “경북방언 초분절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국어학』(국어학회) 22.
- 김무식(1999), “경상도 방언 초분절소와 실험음성학적 연구”, 『어문학』(한국어문학회) 66.
- 김성환(1988), “경북방언의 성조에 대한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 김영만(1966), “경남방언의 성조 연구”, 『국어국문학』 31.
- 김영만(1967), “이조 전기 한자음의 운율”, 『한글』(한글학회) 139-140.
- 김영만(1972), “고급 성조 비교 재론”, 『한글』(한글학회) 149.

- 김영만(1974), “방점 표기의 원칙과 성조 변화”, 『국어국문학』 64.
- 김영만(1986), “국어 초분절음 연구”, 『영남어문학』 (영남어문학회) 13.
- 김영만(1987), “국어 초분절음소의 사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김영만(1989), “형태소()의 기저운율(성조)에 대하여”, 『정연찬선생 화갑기념 논총』.
- 김영만(2000), “국어 초분절소(운소)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동양학』 (단국대) 30.
- 김영송(1963), “경북방언의 음운”, 『국어국문학지』 (부산대) 4.
- 김영송(1974), “경남방언”, 『국어방언학』, 형설출판사.
- 김영태(1975), 『경상남도 방언 연구』, 진명문화사.
- 김영태(1985), 『창원지역어 연구』, 경남대 출판부.
- 김재문(1977), “서부경남방언의 음운 연구”, 『진주교대논문집』 15.
- 김주원(1984), “18세기 경상도 방언의 음운현상”, 『인문연구』 (영남대) 6.
- 김주원(1991), “경상도 방언의 성조 고조의 본질과 중세국어 성조와의 대응에 대하여”, 『언어학』 13.
- 김주원(1994), “성조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인문과학』 10.
- 김주원(1995), “경상도 방언의 성문과열음의 성조”, 『언어학』 17.
- 김주원(2000), “영남방언 성조의 특성과 그 발달”,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69.
- 김차균(1977), 『경상도 방언의 성조체계』, 과학사.
- 김형규(1974), 『한국방언 연구』, 서울대 출판부.
- 남영종(1989), “영해지역의 통시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문효근(1962), “대구방언의 고저장단”, 『인문과학』 (연세대) 7.
- 문효근(1974), 『한국어성조의 분석적 연구』, 세종출판공사.
- 박종수(1979), “서부경남방언의 성조형 기술”, 『진주교대논문집』 19.
- 박창원(1983), “고성지역어의 음운사에 대하여”, 『국어연구』 54.
- 백두현(1982), “성조와 음라우트 - 성주·금릉지역어를 중심으로 -”, 『어문론총』 (경북대) 16.
- 백두현(1985), “상주 화북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 『소당천시권교수 화갑기념 논총』.

- 백두현(1989), “영남문헌어의 통시적 음운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 서재극(1969), “경주방언의 부사형 -a와 향찰 ‘良’,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1.
- 서정목(1981), “경남 진해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에 대하여”, 「방언」 5.
- 성인출(1984),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 손병태(1996), “향약 약재명의 국어학적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 신기상(1986), “동부경남방언의 음운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 신승원(1982),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신승원(1990), “영풍지역어의 문화양상”, 「영남어문학」 (영남어문학회) 17.
- 신승원(1990), “영풍지역어의 조사자료(1)”, 「영남어문학」 (영남어문학회) 18.
- 신승원(1991), “영풍지역어의 조사자료(2)”, 「영남어문학」 (영남어문학회) 20.
- 신승원(1996), “경북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분화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 오종갑(1982), “칠대만법에 나타난 경상도방언적 요소”, 「조규철교수 화갑기념 논총」.
- 오종갑(1998ㄱ.), “개, 개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청암 김영태박사 화갑논문집」.
- 오종갑(1998ㄴ.), “울릉도지역의 방언에 대한 실태조사(음운편)”, 「영남어문학」 (영남어문학회) 33.
- 오종갑(1999. 7), “y계 이중모음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인문연구」 20-2.
- 오종갑(1999ㄴ.), “경음화와 영남방언”,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67.
- 오종갑(1999ㄷ), “영남방언의 음운론적 특성과 그 전개”,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35.
- 이동화(1984ㄱ), “안동지역어의 음운동화와 삭제”, 영남대 석사논문.
- 이동화(1984ㄴ), “고령지역어의 모음순행동화”, 「영남어문학」 (영남어문학회) 11.
- 이동화(1984ㄷ), “동남방언 성조의 연구와 검토”, 「영남어문학」 (영남어문학회) 13.
- 이동화(1989), “국어자립분절음운론의 연구방향”,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50.
- 이동화(1990), “경북방언 성조의 자립분절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 이동화(1991), “경북 반촌어의 음운론적 특징.”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52.
- 이문규(2001), “경북방언 의문문의 성조 연구”, 「한글」 (한글학회) 252.

- 이병근(1979), “방언 연구의 흐름과 반성”, 『방언』 1.
- 이상규(1984), “울주지역어의 음운”, 『어문론총』 (경북대) 18.
- 이상규(1990), “경북방언 격어미 형태구성과 기능”, 『어문론총』 (경북대) 24.
- 이시진(1987), “문경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이시진(1996), “경북방언의 공시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 이영덕(1996), “18세기 영남문헌어의 표기법과 자음음운현상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이옥화(1983), “풍기지역의 음운론적 고찰”, 『비사논집』 (계명대) 6.
- 전광현(1979), “경남 함양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단국대) 9.
- 정연찬(1974), 『경상도 방언 성조 연구』, 탑출판사.
- 정연찬(1979), “경남방언 음운의 몇 가지 문제”, 『방언』 1.
- 정영호(1994), “남해도 방언의 성조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 정인교(1987), “경상도 방언 성조의 비단선적 음성·음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정인상(1982), “통영지역어의 용언활용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방언』 6.
- 정 철(1977), “경북지방의 음절의 연구”, 『동양문화연구』 (경북대) 4.
- 정 철(1980), “경북지방의 언어축약현상”, 『어문론총』 (경북대) 13·14.
- 정 철(1982), “음운자질의 흡수현상”, 『방언』 6.
- 정 철(1988), “경북 벽지촌락의 언어체계의 조사 연구”, 『어문론총』 (경북대) 22.
- 조현숙(1985), “경북방언의 운율체계 연구”, 『국어연구』 66.
- 천시권(1965), “경북방언의 방언구획”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3.
- 최명옥(1978^ㄱ), “병, △와 동남방언”, 『어학연구』 (서울대) 14-2.
- 최명옥(1978^ㄴ), “동남방언의 세 음소”, 『국어학』 (국어학회) 7.
- 최명옥(1979), “동해안 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방언』 2.
- 최명옥(1980), 『경북 동해안 방언 연구』,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92), “경상남북도 간의 방언분화 연구”, 『애산학보』 13.
- 최명옥(1994), “경상도의 방언구획 시론”, 『우리말의 연구』, 우골탑.
- 최명옥(1995), “경남 함천지역어의 음운론”, 『대동문화연구』 30.

- 최명옥(1998), “현대국어의 성조소체계”, 「국어학」 (국어학회) 31.
- 최임식(1986), “19사략 언해의 음운론적 고찰”,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47.
- 최임식(1991), “19세기 후기 남부 방언자료의 표기와 음운현상”, (계명어문학회) 6.
- 최학조(1962), 「전라남도 방언연구」, 한국연구총서 17.
- 최학조(1978),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 최한조(1993), 「대구지역어의 음운변동과 성조 연구」, 대구대 박사논문.
- 허 웅(1954), “경상도 방언의 성조”, 「최현배 선생 환갑기념논문집」.
- 현평효(1962), 「제주도 방언 연구」, 정연사.
- Ramsey, S. R.(1974), “함경·경상 양방언의 액센트 연구”, 「국어학」 (국어학회) 2.

※ 이 논문은 2001년 10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01년 11월 2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1년 12월 1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